

'이겨내자 코로나19 · 살아나라 전통시장'

전북중기청, 여경협
전북지회와 함께
남부시장서 장보기 행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심리가 심화되고 외부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도내 전통시장의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최근 전북지역 확진자수가 9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증가 추이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만큼, 전통시장 방문 소비심리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강구하고 나섰다.

전북중기청은 위기에 처한 도내 전통시장을 되살리는 미중물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고객 관심 및 유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활력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고려해, 현수막 홍보→장보기 행사→현장 캠페인 순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플랜을 세우고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인 불살라기 불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최근 전북중기청은 전통시장 방문 유인 제고를 위한 시각적인 홍보 및 '가치샵시다' 문화 확산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지난 12~13 양일에 걸쳐 도내 60개 전통시장 입구·주변에 '전통시장에서 가치샵시다' 현수막(100매)을 제작해 게시한 바 있다.

또한, 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회



전북중기청은 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와 합심해 18일에는 도내 대표 거점시장인 전주남부시장에서 50여명의 활동 인원을 꾸려 장바구니와 마스크 등을 배포하면서 활발한 숄선수범 은누리상품권 이용·장보기를 실시했다.

장 김지혜, 이하 '여경협전북지회)와 합심해 18일에는 도내 대표 거점시장인 전주남부시장에서 50여명의 활동 인원을 꾸려 장바구니와 마스크 등을 배포하면서 활발한 숄선수범 은누리상품권 이용·장보기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여경협전북지회는 회원사((유)오가닉코리아)에서 기증한 마스크 2,000매를 지역 전통시장에 전달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데 응원의 손길을 보냈다.

전북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이렇게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나서줘서 감사하며, 오늘의 따뜻한 마음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향후 전북중기청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북중소기업 지원기관·협단체(29곳) 등과 함께 보다 규모 있는 민관합동 '전통시장 활력 찾기 캠페인'도 본격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생태

계의 한축인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버락 끝 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방역과 경제에서 비상 국면을 헤쳐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뢰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청은 위기의 전통시장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과감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이며, 도민들께서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동네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강풍 예상... 시설작물 피해 최소화를

농진청, 비닐하우스 무너질 우려 있을 시 버팀목 보강 등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8일 봄철 발생하는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시설재배 작물(이차 시설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강원, 충남, 경남 지역 등을 비롯한 내륙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시설물 손상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풍이 예보되면 비닐하우스의 바깥부분 비닐을 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버팀목으로 보강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살펴 찢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교체해 시설안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비닐하우스 안에 바람이 들

어오지 않도록 밀폐한 뒤 내부 온도를 점검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실시한다.

강풍이 지나간 뒤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작물이 저온피해를 받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작물 위에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바로 덮고 최대한 빨리 파손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농작물이 경미한 저온피해로 회복이 가능할 경우 햇빛을 2~3일 정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빛을 받도록 관리한다.

정중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봄철 강풍 피해에 대비하여 기상청 예보에 관심을 갖고, 강풍이 예보되면 시설물 등을 미리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우리 동네에서 카드 쓰고 경품 받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푸짐한 경품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오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에서 농협카드 쓰고~ 자동차 등 경품 받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농협 개인 신용·체크(기입), 신한카드, 기프트카드, BC 카드 제외, 한달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 전자상거래, 상품권 구매, 해외이용, 홀소금 업종에서의 이용 금액은 제외된다.

이용금액 30만원 당 이벤트 응모권 1장이 부여되고 최대 10장까지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총 1,336명에게 1등 자동차(배우 스마트스트림, 1명), 2등 아이폰 미니(10명), 3등 에어팟 프로(25명), 4등 NH포인트 5만원(100명), 5등 NH포인트 3만원(200명), 6등 NH

포인트 1만원(1,0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NH농협카드 앱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NH농협카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과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또는 개인 고객은 신용카드대금 청구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 받을 수 있으며 개인 고객은 피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약국 업종 이용 시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와 금융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고객, 지역과 함께 하는 든든한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카드 스마트앱 또는 홈페이지나 카드고객센터(1644-4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지원

한전 김제지사

한전 김제지사 사회봉사단(지사장 라영균, 노조위원장 김기열)은 '대구 지역 코로나 경증환자 및 의료진' 250여명이 삼성생명 전주연수소(김제시 금구면 소재)에 입소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8일 꿀, 바나나, 오렌지 등 과일 30박스를 김제시청을 통해 전달했다.

김제시장 등 시청 관계자들도 멀리서 오신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보내 준 김제한전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달했다.

한전 김제지사는 지난 1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협약을 체결한 김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직접 구매했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향후에도 어려운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랑 나눔에 참여한 라영균 김제지사장은 "타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쾌유로 사랑받는 가족에 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전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상공의 날 모범기업인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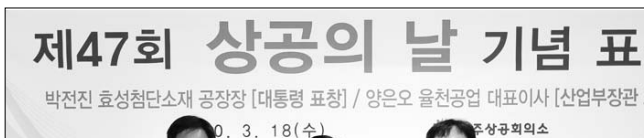
박전진 효성첨단소재 공장장, 대통령 표창
양은오 울천공업 대표이사, 상동부장관 표창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18일 제47회 상공의 날을 맞아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전진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장과 양은오 울천공업(주) 대표이사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효성첨단소재(주) 박전진 전주공장장(53)은 27년간 재직해오면서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양산화에 성공했으며, 원료공정부터 최종 탄소섬유 생산 공정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통한 제조 경쟁력 확보와 탄소섬유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증설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 탄소섬유 발전과 고용창출에 크게 공헌했다.

또한 전주와 전북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미래 지향적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헌 활동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울천공업(주) 양은오 대표이사(55)는 자동차·농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을 경영해오면서 투철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다용도, 다기능 자동화 멀티디그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18일 제47회 상공의 날을 맞아 박전진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장과 양은오 울천공업(주) 대표이사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를 개발해 원가 경쟁력 및 제품 신뢰성을 확보해 농기계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일자리창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 등의 공을 인정받았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기업인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상공의날을 맞아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의 날은 우리나라 상공업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 상공의 날 표창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기념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은, 코로나19 대응 'JB사랑 나눔 헌혈캠페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7일 전주시 금안동에서 위치한 전북은행 본점 현관 입구에서 'JB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본점 임직원 약 40여명이 헌

혈캠페인에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전북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으로부터 이동헌혈서비스를 지원받아 방역 및 날씨 등으로 인해 헌혈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매년 헌혈캠페인을 펼쳐 생명나눔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헌혈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주민의 향토은행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 '화혜농가 꽃 사주기 운동'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윤상 기자

민생경제 회복방안 마련

새만금개발공사, 선금 의무
지급 비율 최대 70% 상향 조정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계약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 10억원 이상 최대 35%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금 의무지급비율 상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월 16일 기준 해당 과업의 잔여 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물품계약 대상에 한다.

공사에 따르면 계약소요일수를 당초 98일에서 67일로 26일 단축(협상방식 기법)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강팔문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공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공사의 노력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수자원공 금강유역본부, 코로나19 극복 기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본부장 이범우)에서는 지역 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에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사단법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와 연계해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 내 선별 진료소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시·군 및 간선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범우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확대 및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 19가 확산 된 이후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화혜농가 꽃 사주기 및 헌혈 행사 등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윤상 기자



지역 내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에 도시락 지원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 19가 확산 된 이후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화혜농가 꽃 사주기 및 헌혈 행사 등의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